

월요광장



채 희 윤
소설가·광주여대 교수

아라포차라는 인디언 족은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한다. 초겨울이 시작되는 시기라 만물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지난 14일에는 다 사라지지 않은 것을 보여준 큰 일이 우리에게도 있었다. 어느 쪽에서는 '민중 총궐기'라 하고, 어느 의학생은 '만민공동회 집회'라 했으며, 한 정당에선 '불법폭력집회'라 했던 바로 그 집회 말이다. 명칭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날 있었던 것은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를 내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마음이 잠시 뜨거웠다.

특히 '만민공동회'라 지칭한 의학생이

12월, '존경하는 달'에 존경을 배우며

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는 치지도외로 하고 의학도의 입장에서, 응급 환자의 구급차에 물대포를 발사하여 이송을 지연시킨 행위에 대하여 인술의 철학을 그렇게나마 공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그에게 부끄러움을 느꼈다.

보신에 매우 민감하며, 겨우 안방 대장인 나는 부당한 세상사를 적당만 독설로 자위하고, 적절한 욕설로 미장하면서, 적어도 시대의 정의에 편승할 줄을 안다는 것 정도를, 내 시민권의 참여의 보루로 삼아 그 공간을 끝내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집안에서나 강의실에서나 약간의 비판적 견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부모와 선생으로서 대사회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위장한다.

그래서 가끔 맞닥뜨리는 정론 직설에는 거부하기만 하며, 사실 추능까지 들고 회피한다. 그 중 하나가 허균의 '성소부부'고'인데, 11권에는 모두 잘 아는 '호민론'이 실려 있다. 이 놀라운 혁명가의 분류에 따르면 나는 '초라한 향민이거나 엉겨주춤 원민'일 것이다. 장기편의 차로 좋지치기, 그 줄에 해당함에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가끔 '포'나 '상' 정도로 대접 받으

고 하는 무명을 저지른다. 죽어서 허균을 만나면 그는 이런 내게 뭐라고 질책할까. 과연 그와 만날 폼수나 될까.

700여 대의 경찰버스와 20여 대의 트럭을 차벽으로 한 견고무비로 웅장스러운 우리 경찰들의 서슬 퍼런 눈길과 맞서며 행진하는 많은 시민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인터넷 방송의 생중계로 보며 나는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다. 어떤 정치인 말마따나 잘못된 역사교육으로, 자기 패배주의와 이기주의라는 비애국적 사상에 물든 학생들만 있어서, 그들의 선배들이 만들어 온 민주를 지킬 정의감은 조금도 없고, 오로지 취업에만 올인하는 존재들이냐 오늘의 학생들이라고 여론중에 나는 편파적 판단을 내리고 있었다.

'오포 세대', '헬 조선', '금수저 은수저' 등으로, 나처럼 쪽쪽 숨어엎드려 낮은 소리만 내는 '안방장군이나 골목대장'만 있다고 생각한 내 어리석음을 여지없이 산산조각 내주었기 때문이다. 소설 제목처럼 '부끄러움을 가르쳐' 줘서 '이제 다 사라진 것은 아님'을 내게 알게 해 주어서 정말 고맙다. 오랫동안 잊었던 친구의 편지만큼이나 반갑고 감격스럽다.

미국 인디언 족들은 또 12월을 '존경하

는 달'과 함께 '다른 세상의 달'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우리도 '선달'이라는 어원조차 생소한 명칭으로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명명한다. 설이 있(을)는 달이라서 그렇게 일컫는다고 하지만, 인디언 언어처럼 뭔가 의미 있고 멋스럽지는 않은 것 같다. 왜 호프족 그들은 존경하는 달이라고 했을까?

문득 그 존경의 대상이 궁금하다. 존경의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큰 위로와 위안을 얻는다. 그런데도 이즈음 세태에서, 우리들을 힘있게 하는 것 중 하나가 존경할 만한 존재들을 잃거나 없애거나, 더 정확하게는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데리다 말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천 개의 고원쯤이며, 우리는 유목민으로 그곳에 기생해 있다가 다른 것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럴까?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 넘어야야 해서 그러는가, 나를 세우기 위하여!

그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날 광화문과 시청 광장에 있었던 그들 모두와 지금도 죽음을 헤매는 농부를 존경해 보려다. 그러면, 혹 내 방 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법조칼럼



김 윤 정
광주지검 공판부 검사

지난달 2일 법무부가 추진하고 광주지법검찰청이 주관하여 광주광역시, 법무부 법사법위원 광주지역연합회, 광주 선진교통문화 범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진행한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선포식'이 있었는데, 벌써 한 달 반 가량이 지났다. 법무부에서는 올해 사회갈등을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타인에 대한 배려가 진정한 법질서 확립의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배려, 법질서 실천 운동'을 진행해왔다. 광주는 그 일환으로 교통분야에 중점을 두어 'S(시작해요), O(오늘부터), S(서로 배려를)' 1000만명 릴

오늘 '배려춤' 한 번 어떠세요

레이 캠페인'을 하고 있다.

솔직히 필자는 10년 전에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할 때는 자정 운전의 신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운전하는 차이니 부담스럽지 않게 중소형차를 구입하였고 '봉봉이'라는 애칭도 붙여 운전의 신이 될 준비를 하였건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일 차선 자동차들이 끼워주지를 않아 차선 변경하는 것은 왜 그리 어렵던지, 빨리빨리 가라고 너 때문에 교차로에 진입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취지로 뒤에서 어쩌나 경음기를 울려대던지... 중소형차로 사지 말고 좀 큰 차로 살 걸 그랬나, 운전자가 여자임을 안보이게 하기 위해 우리랑 선팅을 진하게 할 걸 그랬나하는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양보·배려 좀 해주었으면 하는 경우가 많았고, 누가 양보라도 한 번 해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도로 한복판도 이젠 사회의 한 모습, 경쟁의 연장선상에 있어 다른 사람들로 부터 양보·배려를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도 이해가 가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빨리 운전해서 결국 신호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최소 10분은 더 빨리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성과를 내야 하고 남보다 앞서 가야 하는 경쟁사회에 익숙해져 있으니 나만 양보하면 손해보는 느낌도 강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도로에서는 내가 한 번 양보·배려하였다고 하여 이어나만 손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 운전면허 취득자는 3000만명에 육박하여 거의 전체 인구의 60%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성인 남녀는 거의 대부분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한 명이 양보·배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어차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보와 배려를 또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억울해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양보와 배려를 하고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양보와 배려를 하고, 결국 이렇게 돌고 돌면 나 또한 양보와 배려를

받게 되지 않겠는가.

사실 인생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배려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기초교육을 통해 배려라는 마음을 배웠고 누구나 마음 깊숙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번 칼럼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배려 교통문화 캠페인이 어느 정도 확산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배려교통문화 실천운동'을 검색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광주·전남을 벗어나 다른 지역까지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에 동참하였다는 글과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고, 캠페인에 참여한 직업군도 관공서를 넘어 노인단체, 대학생, 한의사회 등 다양하다. 조만간 목표했던 10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국민을 계도하려던 캠페인 형식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니 그 파급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에 광주일보 독자 여러분도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 고

미래 변화 원하면 지금 행동해야



김 양 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그간 대기업군의 학벌에 기반을 둔 잘못된 채용제도와 관행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학생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능력보다는 더 많은 스펙을 쌓기 위해 애쓰고 있다. 반면, 기업에서는 대졸 신입사원 기준으로 일인당 평균 6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재교육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기업은 기업대로,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서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한 셈이다. 국가적, 사회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현 정부는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직무능력으로 정

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바탕으로 한 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일·교육·훈련·자격으로 연계, 장기적으로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해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이다.

우리 노동시장은 현장과 괴리된 교육 훈련, 구직자와 기업 간의 눈높이 차이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국가역량체계를 구축해 능력중심사회로 가기 위한 기반이다. 이런 맥락에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재학중에 미리 선발(채용), 기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직무매치를 해소하는 것이 바로 일학습병행제의 목적이기도 하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학습병행제는 아직은 초기 단계다. 이를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업의 참여가 절대 필요하다. 현재 전국적으로는 3600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228개 기업에서 456명이 학습근로자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1만개 기업으로 확대하여 약 7만 여명의 청년들이 우수 기술력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기업의 적극적 참여, 교육기관의 우수한 일학습 듀얼시스템 설계가 빈틈없이 맞물려 작동되었을 때 이 제도는 비로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의 교육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는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직업훈련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 해도 구직 당사자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어렵게 소비를 물가로 데려다 놓아도 소가 스스로 물을 먹지 아니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요즘 청년구직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인내심과 도전의식을 가지라는 것이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고 창의적이며 빠른 의사결정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부모세대에 비해 어려운 환경

을 이겨내고 잡아내려는 인내심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수많은 난관과 경쟁을 뚫고 그토록 바라던 취업에 이르더라도 직장생활은 생각처럼 그리 녹록지 않다. 업무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서도 참고 이겨내야 할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다. 바라건대,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인내심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자기만의 커리어를 만들어 가길 선택해주시길 바란다.

비록 현실은 팍팍하지만 우리의 아들과 딸이,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사회는 지금과는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부모의 재력과 경제력이 뒷받침된 스펙이 아닌, 그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만족스런 삶을 영위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여건 때문에 한날 같았는 소리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내일은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다.

社 說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를 애도하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향년 88세로 서거했다. '머리는 빌릴 수 있어도 건강을 빌릴 수 없다'던 그도 노령으로 인한 병마의 벽은 넘지 못한 채 끝내 먼 길을 떠나고 말았다.

김 전 대통령의 타계로, 6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영호남을 대표하며 반세기 넘게 질곡의 한국 현대 정치사를 이끌어왔던 '양금(兩金) 시대'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경남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1954년 3대 민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최연소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그의 최연소(27세) 국회의원 및 최다선(9선) 국회의원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의 사사오입 개헌에 반대하면서 1년도 못 돼 자유당을 탈당하면서 가시밭 같은 야당의 길을 걸어야 했다. 이후 군사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과정에서 당시 상도동을 거점으로 한 김영삼(YS)계와 동교동을 거점으로 한 김대중(DJ)계는 민주화 세력의 양대 산맥으로 한국 정치사에 한 획을 그었다.

금융실명제 등 많은 업적

1979년에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 체제에 맞서다가 총재 직무를 강제로 정지당하고 의원직에서 제명되기도 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의원직 제명을 당한 후 했던 말인 "닭의 모기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명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면서 후대에까지 길이 남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신군부 치하에선 가택 연금 등의 모진 탄압을 당하면서도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결성해 저항했다. 그러나 198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권 후보단일화에 실패한 뒤 통일민주당 후보로 독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낙선 이후 민주정의당·신민주공화당과 3당 합당을 이뤄낸 뒤 1992년 대선에서 승리해 '문민시대'를 열었다. 이때도 '3당 야합'이라는 일부 비난이 관공서를 넘어 노인단체, 대학생, 한의사회 등 다양하다. 조만간 목표했던 1000만 명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해본다.

국민을 계도하려던 캠페인 형식이 아닌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이다 보니 그 파급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에 광주일보 독자 여러분도 'SOS 1000만명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無 等 鼓

왕의 개인 재산을 내탕금(內帑金)이라 한다.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왕의 개인 재산은 있었지만, 출처와 사용처가 비교적 상세히 알려진 것은 조선 시대부터이다.

조선시대 내탕금은 태조의 개인 재산에서 비롯됐다. 건국 당시 태조는 함경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한, 요즘 말로 하면 억만장자였다.

내탕금은 개인 소유인 탓에 지출 내용이 드러나지 않아 왕들은 개인 용도나 공작 정치용 비자금으로 활용했다. 후궁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왕실 묘를 단장할 때도 사용됐다.

이 때문에 왕들은 개인재산에 남다른 애착을 갖기 마련이었다. 종종은 내탕고에 불이 났을 때, 이를 발견하고 불을 끄 나던 전 씨를 정5품 상공으로 승진시키기도 했다.

숙종은 정권 장악에 걸림돌이었던 남인을 축출하기 위해 김석주를 내세워 다양한 공작정치를 폈다. 그는 서인을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돈으로 매수하고, 남인 출신 대신들의 옆집을 사서 감시하는 등 공작정치 비용을

그가 가고 없는 마당에 새삼 그의 대통령 재임 시 치적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 12·12 쿠데타 이후 군을 장악해 온 사조직 '하나회'의 전격적인 해체, 그리고 금융실명제 도입을 비롯한 경제 개혁은 그가 아니면 그 누구도 쉽게 이룰 수 없었던 큰 업적이었다. 또한 칼국수로 대변되는 검소와 청렴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그의 여러 업적에도 불구하고 친인척 비리와 입기 및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 부도 사태는 아쉽고 안타까운 대목이다. 경제 분야에 취약했던 그는 참모들의 장밋빛 경제 전망을 곧이곧대로 믿다가 IMF체재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게 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원성과 원망을 들어야 했다.

한국 현대 정치사의 큰 별

1997년 11월22일, 당시 김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대국민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그로부터 18년의 세월이 흐른 2015년 11월 22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바로 그날, 김 전 대통령이 영면에 들어갔으니 참으로 공교로운 일이다.

어찌 됐든 김 전 대통령이 남긴 족적은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고(故)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양대 산맥을 이끈 현대 정치사의 거목', '그 누구도 흉내 내지 못할 위대한 개혁 업적을 만드신 불세출의 영웅', '한국 민주주의 길을 넓힌 지도자', '대한민국 정치사의 큰 별'. 많은 이들이 한결같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고, 친박과 비박 혹은 친노와 비노로 갈라 썩질이 멈출 날 없으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김 전 대통령이 수많은 동지들과 함께 기록해 놓은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행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선 이 세상 걱정은 모두 접어두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애도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

왕의 개인 재산

해 밀어붙였다. 수원 화성에 저수지 '만석거'를 만들고, 대동장인 '대유둔'을 설치할 때도 사용됐다.

그러 했으나 백성들이 반대하자, 내탕고 수만금을 풀어 건설했다. 물론 대유둔은 크게 성공해 애초 더 크게 만들지 않았음을 백성 모두가 아쉬워했다.

국민이 싫어하는 일을 할 때 자신의 개인 돈을 들여서까지 추진했던 정조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 '반대할 테면 하라'는 식이 아니라 어떻게든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 했던 정조의 정성이 느껴지는 탓이다. 국민의 정서와 상권없이 밀어붙이는 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이 안타깝기만 하다.

/채희중 사회2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창·발행·편집·인쇄인 김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 로 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